

해수욕장 4년 만에 조기·야간 개장될 듯

도, 엔데믹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적극 검토 중
해경·소방 “야간 익수사고 대처 어려워”... 반대 의견
주변 주민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지역상권 타격”

제주도가 4년 만에 해수욕장 조기·야간 개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조·안전 관련 부서들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 행정기관을 포함해 해양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경찰청, 자치경찰단 등 구조·치안 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조기·야간 개장 방안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한 점과 코로나19로 그동안 침체된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해수욕장 조기·야간 개장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고려하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는 작년보다 열흘 이른 6월 20일쯤이며, 개장 시간은 3시간 늘어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그러나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 관리와 구조 임무를 맡은 해경과 119는 안전상 이유로 조기·야간 개장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익수 사고시 적절한 대처가 힘들다”며 “또 야간 개장이 이뤄지면 (해변에서 마을회 또는 청년회가 운영하는) 계절음식점 영업 시간도 야간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 음주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야간 개장 뿐만 아니라 조기 개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

였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안전상 이유로 야간 개장뿐만 아니라 조기 개장에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조기·야간 개장을 수년째 하지 못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에 허용되길 바라고 있다.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2019년 189만명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조기·야간 개장이 불허되며 2020년 102만명, 2021년 94만명, 지난해 130만명에 그쳤다.

김수성 이호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호테우해변이 지난 3년간 여

름 특수가 사라져 주변 상권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야간 개장 등을 막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 투입과 안전 요원 증원으로 보완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해수욕장협의회를 소집해 개장 시기와 운영 시간을 결정할 뒤 이번 달 안에 그 내용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에는 제주시 8곳(금능, 협재, 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서귀포시 4곳(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섬) 등 모두 12곳의 지정 해수욕장이 있다.



물에 들어가도 될까? 16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모래사장을 걸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상민기자

■ 제주지법 27~28차 4·3군법회의 직권 재심 “유죄 증거없다”... 60명 전원 무죄 선고

내란죄 등 혐의로 옥살이
누명벗은 피해자 총 791명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60명이 70여년 만에 추가로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16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수형인 60명을 상대로 청구한 27·28차 직권재심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뒤집어 쓰고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

결을 받은 뒤 타 지역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됐다.

검찰은 피해자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했으며 재판부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억울하게 망인된 피해자들 영혼이 안식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한편 이날 무죄 판결로 4·3직권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피해자는 모두 791명으로 늘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누가 신고했지?”... 딱 걸린 음주운전

20대 충돌 사고... 스마트워치가 자동 신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가 스마트워치의 긴급 구조 요청 때문에 델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22분쯤 제주소방 119 상황실로 긴급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 신고는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로부터 이뤄졌으며 ‘사용자가 충격에 의해 응급 상황이다’라는 내용이였다.

애플워치에는 충돌 감지 기능이 있어 충격을 감지한 뒤 사용자가 10초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이 전송된다.

소방당국은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으로 출동해 20대 A씨를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는 범퍼가 부서진 차량이 있었으며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무면허에 뺑소니...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체포돼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0시45분쯤 제주시 연동의 도로에서 50대 B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고 사고 처리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검거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로, 사고 당시 무면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5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옆 객실 침입 미군 체포

제주에 휴가 온 20대 현역 미군에 리조트 발코니를 통해 옆 객실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쯤 서귀포시 한 리조트 3층에 투숙하던 중 발코니를 통해 옆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발각되자 자신의 객실로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미군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김도영기자

어제는 우박, 오늘은 짹짹... 황당한 5월 날씨

제주 16일 낮 최고기온 30°C 육박... 기상청 “평년보다 8~9°C 높아”

낮 최고기온이 30°C 가까이 치솟으며 제주가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16일 기상청이 제정하는 지역별 상세관측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7분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낮 최고기온이 29.7°C까지 올라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또 구좌읍과 한림읍 낮 최고기온도 각각 29.6°C를 기록했고 애월읍

도 29.5°C까지 치솟았다. 나머지 지역도 27~28°C 사이 분포를 보였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풍이 유입된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평년 이맘때 낮 최고기온은 21~22°C였다.

기상청은 17일에도 제주지역이 따뜻한 남풍의 영향을 받아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2°C 높은 16~18°C, 낮 최고기온은 4°C 높은 22~26°C로 예상됐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서귀포 시내권 일대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직경 0.5cm 크기의 우박이 갑자기 쏟아졌다. 서귀포 지역에서 봄철 우박이 관측된 것은 지난 2017년 4월 이후 6년만이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씩씩염,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도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앞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박시라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20kg

NAVER D.M |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